

Living the Lotus 5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6
VOL. 248



Rissho Kosei-kai of Chicago

Living the Lotus Vol. 248 (May 2026)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김은미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범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범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니와노 니치코(庭野 日鑛)

입정교성회 회장

서로 연결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실로 약하고 미미합니다. 인간은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생존 경쟁에서 밀려 결국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것도 우리들의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협력하며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도의 사회를 구축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과 사이 좋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의의’라고 말씀드렸습시다만, 생명의 역사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풍조 때문인지 인간이 가진 특별히 뛰어난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나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려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고, 또는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상징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이들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 속에서도 초, 중, 고등학생 자살자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명지 연구자인 나카무라(中村桂子:1936~)씨가 10년도 더 전에 ‘지금 가장 두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다. 초등학생이 나에게 자신의 목숨에 대해 고민하며 ‘죽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 온다’ (생생(生生)』/2015년 3월호) 고 서술하고 있듯이, 당시부터 학교에서의 고립이나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마음이 지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삶을 묻는다

우리들은 내가 곤란한 일을 겪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타인의 고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하며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게 되면, 그 당사자의 마음을 정말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원(道元)선사는 ‘불도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니...’라고 논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에 대한 것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모르는 나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속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육자인 모리 신조(森信三)선생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生)”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만큼 위대한 은혜는 이 지상에는 없다. 그리고 이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참된 종교다’라고 지적하셨으며, 나카무라 케이코(中村桂子)씨는 아이들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절실히 바라십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생명의 진실을 전하는 중요성을 설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씨는 ‘나 자신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쪽 이어져 있어서, 38억년 전의 선조의 세포에 도달한다’고 말씀하시며 ‘자타일체’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자타를 존중하는 마음과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의 감사함을 자각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로 고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컷볼에 닿았을 때, 힘이 되는 말을 건네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괴로운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람을 멀리하는 마음이라고 답하라’-료칸(良寛)선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지 않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매일 세 번씩 반성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의 변화라도 포착되면 ‘무슨 일 있어?’ 하며 말을 걸어준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을 구제하며 청소년 육성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성』2026년5월호)



개조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부처님의 연(緣)에 살려져서

입정교성회 뉴욕교회 시카고 지부 무라카미 카요

이 체험설법은 2025년3월5일 대성당에서 열린 ‘교단창립 88주년 기념식전’에서 공로자 대표로 발표된 설법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단창립 88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좋은 날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저희들을 맞아 주시는 본존님 앞에서 고귀한 설법 역할을 받아 가슴이 벅칩니다. 저는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35년간 임해온 지부장 역할을 퇴임하였습니다. 지나온 발걸음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인연과 배움을 부처님께 넘칠 정도로 받아 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1945년3월20일, 동경 아자부(麻布)에서 시로토리(城取)집안의 다섯 남매 중 막내딸로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 주셨습니다. 동경대공습이 일어나고 열흘 후, 언제 폭탄이 떨어질 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히노시(日野市)로 피난했고, 1952년 아버지가 신뢰하는 친구인 마스다 씨에게 인도되어 입정교성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제38지부 노무라 지부장님의 지도 아래, 매일매일 본부에 다니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없는 조용한 집에서 외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사를 하여, 어머니는 입정교성회 세타가야 교회로 이전을 했고, 그 고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서 친척이나 상점가 가게 한집 한집을 입회하였으며, 그 안에서 감동한 것에 대해 가정에서 활기 넘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점점 ‘엄마는 정말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밝고 이야기를 잘 하는 어머니와, 말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는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았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저는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후 저는 교성 여자학교를 다니며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즐겁게 학교생활을 지내며, 무지각 무결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교성회의 학생부 활동에도 권유 받아, 청소봉사 등을 통해 가르침의 연에 닿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결혼을 바라고 계셨던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당시 첫째 언니가 일본계 2세와 결혼해서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것도 있어, 평소에 동경하던 미국으로 갈 것을 결심했었습니다.



대성당에서 설법을 하는 무라카미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어학교를 다니며, 부모님께 성인식 기모노 대신에 비행기표 값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해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500 달러만을 가지고 언니가 사는 동경하던 시카고를 향했습니다. 미국은 젊은 저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넘쳤으며, 합리적인 생활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즐거움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거기에서 언니 남편의 친구로, 나중에 저의 결혼 상대가 된 일본계 2세인 남편과 만났습니다. 반년 후에 귀국한 저는, 그에게 몇 통이나 되는 편지를 받아,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일본까지 와서 결혼 신청을 받았습시다만, 저보다



1990년, 개조님께 지부장 역할의 마음가짐을 듣는 무라카미님

18살이나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반대가 심할 수록 더욱 완강 해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수속을 밟고 24살 시카고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던가’ 하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매일이 계속되었습니다. 2년후, 1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을 때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아버지가 남편의 성품을 알고 안심하고 손주의 탄생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두번이나 미국에 와 주셨습니다. 한번은 시카고에서 개조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험은 아버지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부는 언니 집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사교적이었던 언니는 지역분들과 교류하며 집에 친구를 초대하여 즐겁게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듣기도 하며, 거기에서 교성회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조님께서 해외 도향으로 미국을 방문하셔서 시카고에 들려 주셨을 때,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는 지도자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웃음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이 좋게 모이면 좋을 것 같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는 항상 방에 가득 찰 정도로 사람이 모였으며, 그 중 한 사람이었던 언니가 인도한 마즈모토씨가 초대 지부장이 되어 시카고 지부가 발족했습니다.

그 후 입정교성회 뉴욕 교회 시카고 지부로서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저는 1990년에 지부장 역할을 배명받아 개조님께 직접 역할에 대한 마음가짐을 받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아이들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에 참가하신 개조님께서 귀국하시는데 공항까지 배웅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개조님께서 언니가 범의 씨앗을 뿌린 시카고에 동생이 지부장 역할을 배명 받았다고 하자 굉장히 기뻐하시며, 제 이름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대라면 머지않아 지부가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누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며 행동에 옮기면 좋다” 고 하시는 개조님 말씀에 ‘어머! 내 어디를 봐서 그런 힘이 있을까?’ 하며 기뻐서 그저 들떠버렸습니다. 동시에 용기를 주신 말씀에 역할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저는 항공회사에서接客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부장답게 살아가고 싶다’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나로 있고 싶다’ 고 생각하여, 삶의 보람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아침 저녁 독경공양을 빠뜨리는 일은 없었으며, 너무 지쳐서 독경공양 중에 졸아서 촛불에 머리를 태운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즈음, 미네소타주 미시간주에도 신자들

의 모임이 널리 퍼져 있었고 케러방이라고 이름 지어 교회장님과 함께 공항에서 차로 10시간에 걸쳐 포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장대한 국토인 미국이기에 가능한 포교의 현실입니다. 당시 시카고 지부에서는 우리들의 도량을 주선받고 싶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입회 되도록 수행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걸쳐, 교외의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염원하던 도량을 열게 되었습니다. 2001년, 회장선생님께서 와 주셔서 입불낙성식을 거행, 본존상이 권청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저는 “이번 생, 제가 본존님, 그리고 가르침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시카고지부는 뉴욕교회에서 비행기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장님은 한 두달에 한번 숙박을 하시면서 포교를 해 주셨으며, 저희들은 그 때마다 힘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주 보고를 드리거나 상담을 하며 회원들과 교회장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한편, 지부장으로서의 고민과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영어 법좌 참가자 중에는 각자 전문분야의 지식인이 많아서, 불교를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입회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과 어드바이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방법론만으로 사람은 구제받지 못한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대로 팬츠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서도 저 또한 법좌주로서 결과를 내는 것을 우선시하며 바로 답을 해버리는 저였습니다. 저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법좌주 교육을 배우면서도, 현실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계속됩니다.

어느 날 법좌에서 의견을 내는 분에게 교회장님께서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장님은 그저 아무

Interview

말도 안하고 그 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그 분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아무중 계속해서 달려온 제가 멈춰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려는 여유가 없었으며, 내 뜻대로 하고 싶다면 괴로워 하던 미숙했던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코로나 감염사태 중 지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뉴욕교회와 연결되어, 다른 주에 사는 회원분들과도 함께 배우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여, 저는 이 큰 변화야말로, 부처님의 주선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 지부는 한사람 한 사람이 개성과 특성이 넘치고 마치 천수관음보살과 같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살려서 훌륭한 포교가 전개될 수 있는 지부라고 지금은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승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탱받아서 역할에 임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시카고의 승가는 저의 자랑입니다. 되돌아보면, 시카고에 영주하게 된 것은 18살 나이 많은 남편과의 만남이 계기였습니다. 남편과 교환한 약속인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긴 세월, 가정과 일, 그리고 역할에 힘썼습니다. 저는 잔소리가 많은 엄마였지만 너그럽고 다정하게 가족을 아끼는 남편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아들은 경찰관이 되어 퇴직 후인 지금은 경찰관에게 유술을 가



선데이 서비스에서 법좌주를 하는 무라카미님

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항상 곤경에 처한 친구들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못하고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역할에 임하는 저를 남편은 항상 조용히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그 남편은 직장암에 걸려 2002년3월30일, 7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며, 아이들도 함께 간병을 한 두달 동안, 남편이 통증도 고통도 없이 가족이 다 함께 있는 가운데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지금도 제 마음의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 가족이 저와 함께 살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아이들이 모이면 반드시 아버지를 그렇게 추억하며 남편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들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많은 인연, 여러가지로 경험한 갈등과 기쁨,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 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부의 일원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계 사람들의 서비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11월, 지부장 퇴임식 날에 시카고 지부 여러분과 함께(앞줄 왼쪽에서 3번째)



부처의 옷을 입다

「인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입정교성회 개조 니와노 닛쿄(庭野日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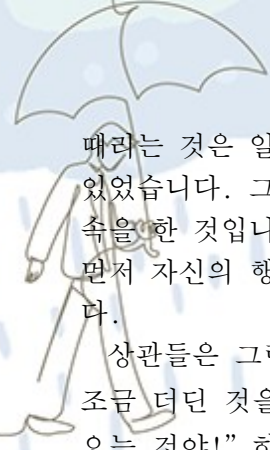


유화인육의 마음' 이라고 해서 '유화'의 다음으로 '인육'이라는 것이 설해집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내'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반항, 모욕, 박해 등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즉, 인내심이 없으면 유화로운 마음(유연한 마음)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인내하는 마음이 가볍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강한 인내심이 사라진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방망이로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들은 조금 자기 멋대로의 가치판단을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어떤 계기로 화끈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화가 날 것 같은 순간에도 그 분노를 누르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어서 송구합니다만, 해군에 있었을 때 신병 교육 담당을 명령받았던 일이 있습니다(1929년쯤). 당시의 해군에서는 신병교육에는 체벌을 필요로 하여 뺨을



때리는 것은 일상다반사로, ‘정신봉’이라는 곤봉으로 기절할 정도로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병들에게 “너희들을 절대로 때리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교육 담당인 저는 먼저 자신의 행동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이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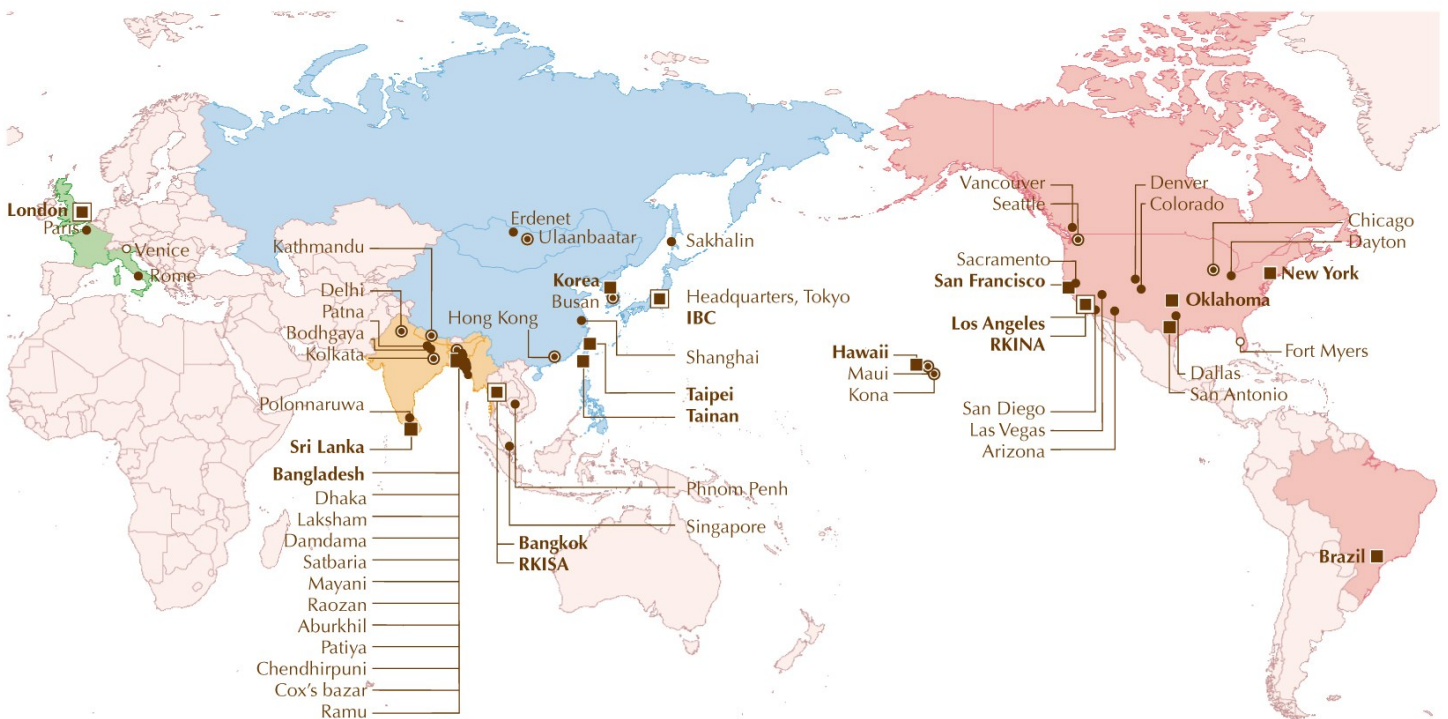
상관들은 그런 저를 건방지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신병의 동작이 조금 더딘 것을 본 갑판 사관이 “니와노! 네가 뺨을 때리지 않으니까 이런 놈이 나오는 것야!”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세계 후려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방침을 바꾸지 않았으며, 철저히 비폭력적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맞더라도 신병을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병들의 행동도 일변한 것이었습니다.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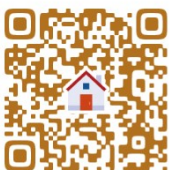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